

## 서북권

### •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.3% 감소하며, 서울 권역 중 가장 심한 소비부진

- 전년동월대비 -11.3% = 소매업의 기여도 -8.5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2.8%p  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※ 관련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)

### •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15.5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6.1% 감소

- 소매업은 무점포소매업 이탈과 모든 소매업종에 걸친 소비부진으로 큰 폭의 내림세 지속
  - 9월 소비증가 업종은 없음
  - 9월 소비감소 업종은 무점포소매, 기타가정용품, 의복·섬유·신발, 종합소매업, 가전제품·정보통신
  - 무점포소매업의 큰 폭의 하락은 지난해 10월 무점포소매 가맹점이 서북권으로부터 이탈한데 기인
-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업의 하락폭 축소에도 음식점, 주점·커피전문점업의 내림폭 확대로 감소폭 증가
  - 9월 소비증가 업종은 없음
  - 9월 소비감소 업종은 숙박업, 음식점, 주점·커피전문점업

